

부를 절제해야 함을 확인하였기에 그 치료에 대하여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고자 한다.

17

두경부에 발생한 광범위한 신경섬유종증의 치험례

- Treatment of Extensive Neurofibromatosis on
the Head and Neck -

한양의대 성형외과
이신규* · 최희운

신경섬유종증은 피부, 신경계, 연부 조직 및 골격계의 발육변화를 특징으로 하는 가족성 질환으로 1882년 Von Recklinghausen이 처음으로 보고한 이래 1924년 Brooks와 Lehman이 연부 조직의 종양에 의한 골변화를 유발하는 데에 대하여 기술한 바 있다. 이는 Schwann세포의 비정상적인 증식에 의한 증추 신경 및 말초 신경의 종양을 특징으로 하고, 피부에서는 담갈색 색소를 보이는 Cafe-au-lait 반점이 있으며 그외에도 소화기계, 비뇨기계, 내분기계 및 골격계에도 기형을 동반할 수 있다.

이 질환은 주로 몸통과 두경부에 호발하고 대부분 조기에 발병하며 종물에 의한 추형의 교정뿐만 아니라 16~29%에서 neurofibrosarcoma나 malignant schwannoma등으로 악성 변화가 일어나고 골변화가 주위의 중요 구조물에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연부조직의 종양에 의한 속발성 변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조기 진단 및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원 성형외과 교실에서는 안구를 침범하거나 골변화를 유발하는 등 두경부 및 전신에 발생한 광범위한 신경섬유종증 환자 21례를 가능한 완전 절제를 시행하여 치료한 후 비교적 좋은 결과를 얻었기에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드리는 바이다.

18

비인강암 조직에서 중합효소 연쇄반응에 의한 Epstein-Barr Virus DNA 검출에 관한 연구

영남의대 이비인후과*, 미생물학교실*
병리학교실**

서장수 · 배성호 · 이태운*
김성광* · 최원희**

비인강암의 원인은 아직 확실히 밝혀지진 않았으나 1977년 Nadol Hemderson 등의 Epstein-Barr Virus(EBV)가 종양발생 원인인자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가 있었던 이래로 여러 연구소에서 혈청학적 연구, 전자 현미경적 연구 등에 의하여 적어도 EBV가 비인강암의 발생과 관련이 있다는 보고를 하고있다.

최근 유전공학적 기법의 발달로 Virus의 DNA Sequence를 밝혀내고 이를 이용한 DNA hybridization에 의해 비인강암의 조직에서 EBV를 검출하고자 시도되고 있다.

가장 최근에 개발된 중합효소 연쇄반응(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방법은 조직내에 있는 미량의 Viral DNA sequence도 검출할 수 있다.

이에 본 교실에서는 31례의 비인강암으로 확진된 환자의 파라핀에 포매된 조직에서 EBV DNA를 이 PCR과 In situ hybridization 방법으로 검출하여 비인강암과 EBV와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24례의 undifferentiated carcinoma(WHO type III)중 22례에서(91.6%) EBV DNA가 검출되었고, 6례의 non keratinizing squamous cell carcinoma(WHO type II)중 3례(50%)에서 EBV가 검출되었고 1례의 Keratinizing squamous cell carcinoma